

第18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2年7月25日(土) 15時08分 開式

第18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齊唱
4.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5. 開會辭
6. 閉 式

(司會 議事係長 韓相殷)

(15時08分 開式)

○議事係長 韓相殷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第18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서서 壇上의 國旗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이어서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前奏曲에 따라 1節만 齊唱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다음은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議事係長 韓相殷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李斗鶴 議員 同志 여러분!

그리고 區廳 當局의 庚來鳳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關係 局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근자에 무더운 날씨가 持續되고 특히 오늘은 週末인 土曜日 午後 3時인데 여러분께서는 모든 一線業務를 중지하시고 이렇게 成員을 이루어 주시고 특히 關係

公務員께서는 週末에 조용히 쉬어야 할 이 時間에 臨時會를 열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러분의 동참에 대해서 感謝한 마음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번 臨時會를 맞이해서 재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法과 정해진 規定에 의해서 3個 常任委員會가 構成되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각 常任委員會別로 委員長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案件 案件마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진지한 討議事項으로 저 자신 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觀察해볼 때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常任委員會를 構成해서 초창기니 만큼 여러가지의 無秩序한 事態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염려한 것이 도리어 부끄러운 감사를 느낄 정도의 運營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재삼 감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도 週末인 동시에 긴급하게 土曜日 午後에 臨時會를 召集해서 運營委員會에서 決定되는 바에 따라 며칠 내로 금번에 上程되는 主要 案件을 處理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단히 조급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檢討한 끝에 하루속히 上程된 案件을 處理함으로써 맞이하는 8월에 우리 議員은 물론이거니와 關係公務員도 정해진 바에 따라서 휴가도 가실 수 있고 세미나 등등의

活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上程된 案件 處理에 있어서 本會議는 물론이거니와 各 常任委員會가 지속적으로 무더운 날씨에 그 審査 수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隘路가 있겠지만 오로지 우리는 근본적인 정신 자세, 명예봉사직이라는 글자를 아로새기면서 區民福祉와 地域 일 축진을 위해서 거룩한 정신 아래 審査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運營委員會의 決定에 따르겠습니다마는 來日 日曜日도 계속적으로 議會活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關係 公務員은 모처럼 이루어지는 週末의 臨時會를 존중해서 休日에 進行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우리 區民을 위한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깊이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開會辭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韓相殷 이것으로 第18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마치겠습니다.

(15時14分 閉式)